

문헌정보학 분야의 난민연구 문헌고찰

A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Refuge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조 용 완(Yong-Wan Cho)*

〈 목 차 〉

I. 서론	3.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정보원 안내
1. 연구의 필요성	4. 난민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2. 연구방법 및 대상	III. 기존 연구의 한계
3.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양적 부족
II. 기존 연구의 분석	2. 전문연구자의 부재
1.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	3.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보고	4.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
2.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I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난민과 관련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47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주요 주제들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보고,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정보원 안내, 난민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첫째, 관련 연구의 양적 부족, 둘째, 전문연구자의 부재, 셋째,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넷째,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난민관련 연구가 전무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난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 소외계층, 소수민족집단, 정보빈곤, 정보소외, 정보행태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47 articles dealing with refuge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The subjects of these articles are such various as the cases of refugee service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 library service guidance for refugees, information resources of refugees and forced migration study, and information need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refugees. However, the research of this area has such limitations and weakness as the small scale of articles about refugees, the scarcity of professional researchers, the deficient studies concentrating refugees directly, and the unprepared research methods. In particular, there was no article about refugee which was produced by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in South Korea. Urgently needed is the research of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orth Korean refugees considering the recent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 into South Korea.

Key Words: Refugee, Asylum Seeker, North Korean Refugee, Ethnic Minority, Information Alienation, Information Povert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ps2all@pusan.ac.kr)

• 접수일: 2006년 2월 24일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산업사회의 병폐로 여겨졌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예견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의 발생으로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정보빈곤과 정보격차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다루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북미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층 노동자, 장애인, 노인, 유색인종, 이민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정보빈곤 현상과 이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반면,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장애인과 노인 등에 한정되어 연구의 명맥이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층, 재일동포 등과 같이 대상이 확장되면서 소외계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활기를 띄고 있다.¹⁾ 하지만,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는 바로 난민계층이다.

난민들이 전쟁, 내전, 인종청소, 기근 등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유입된 사람들이어서, 새로운 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다른 누구보다도 절박

1) 최근(2001년 이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수록된 소외계층에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제환, 윤유라,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1호(2005. 6), pp.181-202;
이제환, “東京지역 韓人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오사카지역 韓人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91-116; 장덕현,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219-236;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 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167-178;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在日韓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關西지역 거주 한인들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221-248; 김영신,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 한밭도서관 시각장애인실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177-199;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273-295;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111-124; 김선호, “공공 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p.101-123; 전재봉,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12), pp.157-173; 장혜란,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2002. 12), pp.185-212; 강숙희,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229-256; 정종기,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3), pp.53-71.

한 입장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 또는 사회 문제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들의 곤궁하고 피폐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학문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를 해오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류학, 경제학, 지리학, 의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심리학 등의 학문들이 학제적으로 참여하는 “난민 및 강제이주학”(Refugee and Forced Migration Studies)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까지 생성될 정도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²⁾

관련 학문분야의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정보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현상들이 학문적 테마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여오고 있는 국내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정보현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노력을 어느 정도로 보여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정보현상에 대해 관련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문헌정보학계는 오래 전부터 난민 수용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학계와 현장에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난민 관련 연구의 양과 질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경우, 현재까지 난민 관련 연구가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우리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국내 문헌정보학 관련분야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술적, 직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악의 정보빈곤 상태에 있는 난민에 관해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시켜 왔는지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점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난민관련 정보현상을 연구한 자료들을 대상

2) 난민학(refugee studies) 또는 강제이주학(forced migration studies)이라고도 하며, 1980년대 이후 전문 학술저널의 발간, Oxford대학에 난민학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학술회의 개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의 설립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학제적인 학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Elisa Mason, "Forced Migration Studies: Surveying the Reference Landscape," *Libri*, Vol.50(2000), pp.241-251.)

3) 관련통계에 따르면, 머지않아 북한이탈주민 1만명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총 국내입국자는 6,304명이며, 이 중에서 사망자와 이민자 285명을 제외하면 6,019명이 국내에 거주한다고 한다. 연간 입국규모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05. 3쪽.)

연도	'89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6,304

으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문헌들의 주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논문 저자와 사용된 연구방법 등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하여 분석대상 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는 문헌정보학 전문 DB인 LIS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와 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등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⁴⁾ 키워드의 선정은 “LC Subject Heading”, “Thesaurus of ERIC descriptors”, “Thesaurus of sociological indexing terms”를 참고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였다.⁵⁾ 난민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인 refugee, asylum seeker, displaced person 등을 heading 또는 descriptor로 하여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의 3가지 키워드 외에 defector, escapee, statelessness 등을 더하여 총 6개의 검색 키워드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위의 Thesaurus 등에 난민과 관련된 용어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개념이 너무 광범하여 부적합 문헌을 더 많이 가져올 migrant, migration, foreign nationals, foreign worker, undocumented immigrant, homelessness, persecution, exile 등의 용어들은 키워드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위 키워드들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 필드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검색을 실시하였는데, LISA에서는 총 48건의 관련 자료들이 검색되었고, LISTA에서는 총 300개의 관련 자료들이 검색되었으나, 단행본, 영상물 등에 관한 리뷰를 제외한 결과, 142개가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량이 1페이지 미만인 자료들은 주로 간단한 행사소개나 자료소개 등의 내용이어서 제외하였다. 둘째, 위 DB들이 제공하는 초록정보를 토대로 하여 검색된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예를 들어 ‘Home and Exile’, ‘Displaced Person’이라는 도서나 도서의 저자를 소개하거나 난민 출신 작가나 사서의 인생역정을 기술한 경우와 같이 연구목적에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이 두 과정을 거치면서 약 190건의 검색결과(두 DB간 중복 포함) 중에서 상당수가 관련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끝으로 LISA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었는데, LISA에서 검색된 전체 자료 중 총 12건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그 중 7건은 덴마크어였으며, 나머지는 스웨덴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등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연구자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학술지기사색인, 학위논문 DB)과 국회

4) LISA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출판된 440여종의 문헌정보학 분야 정기간행물들을, LISTA는 1960년 중반 이후 출판된 600여종의 문헌정보학 분야 정기간행물 외에 도서, 연구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색인하고 있다.

5) Library of Congress(The Cataloging Policy and Support Office,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2.; Barbara Booth & Michael Blair, *Thesaurus of ERIC descriptors*, San Diego, Calif.: Sociological Abstracts, 1992.; James E. Houston ed., *Thesaurus of sociological indexing terms*, Phoenix, Ariz.: Oryx Press, 1995.

도서관 전자도서관(정기간행물기사색인, 석박사 학위논문 DB), 그리고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인 KISS(한국학술정보), DBPIA(누리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난민’, ‘강제이주’, ‘망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는데, 사회복지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교육학,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들은 상당수 검색되었으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관련된 논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의 관련연구들만으로 연구대상 문헌리스트를 1차적으로 작성하였고, 여기에 DB검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색된 관련문헌 속에 인용되었던 논문들을 추가하여 총 47개의 최종 리스트를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이론적 배경

가. 난민의 정의

국제연합(UN)이 1951년에 체결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refugee)이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⁶⁾ 이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난민이 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1967년 유엔 난민의정서(Protocol on Refugees)는 공식적으로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난민협약의 규정을 현재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으로 규정받으려면,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박해가 존재하며, 박해의 이유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며, 국경을 넘어야 하는 등의 4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⁷⁾

나. 난민의 유형

난민의 유형에는 첫째, 앞에서 설명한 난민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약난민이 있다. 둘째, 난민협약의 4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을 방치할 경우 생명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으로 간주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CHR)에서 구호하고 있다. 셋

6) UNHCR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index.htm>> (2005.12.10)

7) 장복희, “탈북자의 난민지위와 인권보호,” 시민과 변호사, 통권 104호(2002. 9), p.48.

째, 협약난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실상 난민”인데, 이들은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국을 떠난 경우이다. 넷째, 박해받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접수국에서 비호신청이 거부되어 접수국과 인접국을 떠돌면서 비호신청을 계속 하는 궤도난민(refugee in orbit)이 있다. 다섯째,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 보다 경제적 삶이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제적 난민”이 있으며, 여섯째, 조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처벌을 받는 Republikflucht가 있는데, 이 말은 동유럽공산국에서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공화국을 탈출한 자라고 직역할 수 있다.⁸⁾⁹⁾

한편, 난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망명신청자 또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에서 특정한 보호적 지위가 부여되는 망명자/비호자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소관 관청에 의해 아직 난민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은 무력충돌, 내란, 조직적 인권침해, 자연재해 혹은 인재(人災)의 결과로써 대규모로 불시에 또는 예기치 않게 고향에서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인데, 본국의 영토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다.¹⁰⁾ 국제 인권단체인 Amnesty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이민자들은 약 1억7천5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난민들은 약 1,060만 명 정도, 그리고 국내 실향민은 약 2580만 명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¹⁾

다. 난민의 권리

난민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난민협약 등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은 존엄성과 권리에서의 평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 사생활의 보호, 거주지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특히,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인 난민들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정보의 입수와 배포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8)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2000), pp.132-138.

9) 최근 우리나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제는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들어 정치적 억압과 같은 이유보다는 식량난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UNHCR은 난민협약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이들에게도 협약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협약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상 난민 또는 위임난민, 궤도난민, 경제적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난민의 지위로 인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임태근, 상계논문, pp.135-138.

10) 고기복,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아·태공법연구, 제9집(2001. 9), pp.234-5.

1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kr/refugees.php>> (2005.12.30)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함을 밝힌 난민협약과 협약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들이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즉, 난민들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비롯해, 일반인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성인에게는 일할 권리가, 아동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¹²⁾

난민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 온 Amnesty도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종교에 대한 자유, 신분증 및 여행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주거 및 교육, 휴식에 대한 권리, 불법 이민에 따른 처벌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등과 같은 난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난민들도 보통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천명하였듯이,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난민협약 등에 난민의 정보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의 권리를 보다 넓게 확장하면 정보에 대한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때, 난민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입수와 이용에 관한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⁴⁾

라. 난민관련 정보현상 연구의 필요성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보빈곤층은 장애인, 노인, 하층 노동자, 도시 빈민, 농어촌 낙후지역 거주자, 소수인종, 이민자, 난민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평균 교육수준도 사회의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양한 외부 정보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도 타 계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고 그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가족, 친구 등 폐쇄적인 대인정보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의 경우, 언어의 장벽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빈곤층은 만성적인 정보빈곤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곤란함 속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정보요구

12) UNHCR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basic/basics-whois.htm>>:
<<http://www.unhcr.or.kr/basic/basics-nanmin.htm>> (2005.12.10)

1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refugees.php>> (2005.12.30)

14) Nimo Tirimanne, "The Ethics of Information Provision: The Case for Refugee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10, No.2(2001), pp.67-68.

를 스스로 억제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정보빈곤층들이 겪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실무적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중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왜 난민계층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지는 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시급성과 정보와 관련된 난민의 극빈 상태를 살펴보면 저절로 풀릴 수 있다.

특정사회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외계층 그룹들과 달리, 난민들은 모국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정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은 다른 소외계층과 달리 정보의 입수와 이용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도구인 언어에서 큰 장벽을 만나게 되어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자체가 더욱 위축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사실, 이러한 측면은 사실 난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들 그룹은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정착해야 하므로 주택, 교육, 취업,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들을 수용하는 사회로부터 시급하고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처럼 난민과 이주민은 모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주민보다 더욱 열악한 정보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르면 난민과 이주민의 정보환경의 차이를 확연히 할 수 있다. 먼저, 이주의사에서 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아 모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 상황에서 떠밀려 이주하게 된 반면, 이민자들은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찾고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모국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이주과정에서도 난민과 이주민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난민캠프에 수용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전쟁, 내란, 인종청소, 폭동, 기아 등으로 학살, 방화, 약탈, 구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 이웃, 친구들의 죽음 또는 그들과의 생이별을 겪는 등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경험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갖은 질병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 이러한 이주과정은 이민자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주를 위한 준비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민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하층민부터 중산층, 부유층 등 다양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입수와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수준과 이민국가 언어에 대한 준비능력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난민들의 경우는 거의 모두가 경제적 하층민들이며, 최저의 교육수준과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이들 사이에는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지근거 유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민자의 경우, 이민 국가 내에 이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주지역, 종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종 공동체 커뮤니티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고,

15)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전개논문, pp.273-295.

만일 이들이 적응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면 새출발을 지원해줄 가족, 친지나 동료, 친구들이 존재하지만, 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도, 모국 사회에서도 그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지해 줄 근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홀로 매달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사회 내에 많은 정보빈곤 계층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보사회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지속적인 빈곤계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난민그룹은 최악의 정보빈곤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실무분야에서 관련 조사와 연구가 광범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II. 기존 연구의 분석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관련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난민관련 정보현상을 연구한 자료 47편에 대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들은 주제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실시한 난민 대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보고하는 연구가 16편이었으며, 향후 난민과 관련한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가 11편,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주요 정보원에 대한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16편, 끝으로 난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4편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속하는 개별 연구들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보고

이 영역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도서관의 난민관련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펼쳐온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의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선진국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이 개별 국가에 유입되어 온 난민과 강제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서비스 사례를 보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잦은 내전 발생으로 난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한 국가의 정보센터의 사례나 난민이 발생한 지역으로 들어가 사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였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 출판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경우, 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공로를 인정받아 The 2001 Libraries Change Lives Award를 수상한 Merton시 Library & Heritage Service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총 3편의 연구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Merton시 공공도서관은 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자 관장인 John Pateman의 주도하에 기존 도서관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전략과 조직구조, 문화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개발팀 구성, 소수인종에 대한 서비스 증진, 모든 직원의 업무분장에 봉사(outreach)개념 삽입 등 지금까지 도서관이 손 내밀지 않았던 난민 등에 대한 모범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¹⁶⁾¹⁷⁾¹⁸⁾ Blake는 Refugee Action과 British Library 등이 영국에 정착한 베트남 보트피플들의 생애를 그 후손들과 영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20명의 구술내용을 녹음하는 Vietnamese Oral History Project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 구술내용은 British Library에 보존될 뿐 아니라 CD-ROM으로 생산되어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¹⁹⁾ Ward는 도서관 이용율이 저하되고, 점차 노년층 이용자에 의존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비롯한 청년층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 The Youth Quality Leaders Project의 사례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층의 요구에 맞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교육, 세대간·인종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⁰⁾ Carpenter는 London Libraries Development Agency에서 주관하는 “Welcome to your library”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이 공공도서관 이용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벽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 이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현재 5개 런던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자치구 도서관과 이 프로젝트 팀은 상호 협조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워크숍,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난민그룹 관계자, 자원봉사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²¹⁾ Usherwood는 타블로이드 신문들을 중심으로 영국 내 망명신청자에 대해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난민과 망명신청자 등 소수인종을 위한 이해를 드높이고 그들의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the Radio Prague의 사례, Football Unites, Racism Divides의 사례, the Libraries Change Lives Award의 사례 등을 통해 도서관들이 인종주의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타블로이드 신문들과 다른 보다 깊고 명확한 이해를 제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²²⁾

16) “Culture club,”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103, No.7(July 2001), p.394.

17) John Pateman, “Cultural Revolution,”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1, No.1(2002), pp.42-43.

18) John Pateman, “Diversity matters 1: Merton Libraries change lives,” *Library Management*, Vol.23, No.8/9(2002), pp.437-441.

19) Monica Blake, “Testimonies of Vietnamese “boat people” for British Library,” *Electronic Library*, Vol.21, No.4(2003), pp.396-397.

20) Patricia Ward, “Diversity matters 3: the Quality Leaders Project - youth programme,” *Library Management*, Vol.24, No.6/7(Sep 2003), pp.362-366.

21) Helen Carpenter, “Welcome to your library: Helen Carpenter on a joint project by five authorities,”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3, No.5(2004), pp.40-41.

22) Bob Usherwood, “Combating the ‘crisis chatter,’”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4, No.6(June 2005).

다음으로 북유럽에서 생산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Bruun은 계층간, 다른 문화권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에 노력해왔고, 난민과 이주민, 소수인종을 위한 정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온 덴마크 국제협력 협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77년에 이민자와 난민 이슈를 다루는 도서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난민과 이민자 문제에 관심있는 전문가와 학생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서지 발간 및 배포, 전산화 작업, 관련 저널 및 뉴스레터 발행 등을 펼쳐왔으며, 또한 난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들에 대한 자료서비스, 상담지도, 경험 공유, 각종 훈련과 세미나, 출판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²³⁾ Hellman은 단일 민족 전통을 가진 스웨덴 정부가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동화정책을 포기하고 70년 중반부터 소수인종의 문화권리 인정을 선언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한 후, 도서관계가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음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동, 남미 출신 난민증가에 따른 언어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이 삭감되고, 소수인종 서비스에 대한 중앙감독 기관 부재 등의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다.²⁴⁾

다음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Gonzales는 North Carolina주에 소말리아, 베트남, 보스니아 등에서 온 난민들과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이 증가하여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급격히 증대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들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교, 교육, 문화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Greensboro Public Library, Cumberland County Public Library 등 주내 공공도서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민자와 난민들이 갈수록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동화되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과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하였다.²⁵⁾ 그리고, Virgilio는 Tennessee주 Memphis-Shelby County Public Library & Information Center가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인 InfoBU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InfoBUS는 영어 및 외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의 기본적 업무 이외에 최신킴퓨터를 통해 자료검색과 전자도서 제공, 인터넷 이용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육과 다양한 문화, 예술,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그 공로로 특별한 상까지 받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주로 이 지역의 최대 소수인종 그룹인 히스패닉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측면이 있다.²⁶⁾ 미국 Ohio주 컬럼버스시 도서관 분관장이었던 Shelley는 급격히 유입된 소말리아

p.17.

23) Inger Bruu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n immigrants and refugees," *Journal of Multicultural Librarianship*, Vol.4, No.2(1989), pp.83-85

24) Birgitta Hellman, "Library services for refugees and immigrant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3, No.1(1990), pp.16-18.

25) Lena Gonzales, "Public Libraries Reach out to New North Carolinians: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Immigrants and Refugees," *North Carolina Libraries*, Vol.57, No.1(1999), pp.4-7.

난민과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난민/이민 서비스 기관과 소수 인종 커뮤니티들과 협력하는 한편, 소수 인종에 대한 도서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사업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소말리아 난민과 라틴 이민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영어교육 프로그램, 동화구연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도서관과 직원, 이용자, 지역 커뮤니티가 모두 win-win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⁷⁾

캐나다의 경우, Attin은 1980년대 초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공공도서관이 벌였던 난민과 이민자 대상 정보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주 정부의 Ministry of Culture and Recreation은 Newcomer Services Branch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 교육, 취업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영어적응 프로그램을 위탁운영 하였고, 주 공공도서관들은 영어적응 프로그램 지원, 난민 언어 자료제공, 정착관련 자료보존 및 대출, 난민학생 대상 도서관 교육과 유아 대상 동화구연 프로그램 실시, 연방정부 및 Newcomer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었다.²⁸⁾

앞의 구미 선진국의 사례와는 달리, Stewart와 Pathak은 내전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들어온 모잠비크 난민들을 위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각종 학습자료와 영어, 포르투갈어 등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Ndzevane Education Resource Centre의 헌신적 노력을 기술하였다.²⁹⁾

한편, 安井清子和 高山由香은 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본의 曹洞宗國際ボランティア會(Sotoshu International Volunteer Agency) 소속의 자원봉사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경에 있는 몽족 난민캠프와 내전으로 피폐해진 캄보디아 등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림책 제작, 동화 구연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에세이 형식을 빌려 소개하였다.³⁰⁾

끝으로 Kunoff는 히틀러와 나치 집권 당시 외국으로 탈출한 독일 망명자들의 문학작품, 서적, 신문, 반나치 선전물 등의 출판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26) Damone Virgilio,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okmobiles & Outreach Services*, Vol.6, No.2 (2003), pp.7-15.

27) Kristin Shelley, "Faces of Change in Columbus," *The Ohio Libraries*, Vol.17, No.2(Spring 2004), pp.10-13.

28) Horold Brian Attin, "Newcomer Services of the Ontario Government," *Ontario Library Review*, Vol.65, No.4,(1981) pp.225-231.

29) Shelagh Stewart & Richard Pathak, "Ndzevane education resource centre," *Journal of Multicultural Librarianship*, Vol.3, No.2(Mar. 1989), pp.83-84.

30) 安井清子, 高山由香, テンドゥルカル美智子, "アヅアの子どもと圖書館(Ⅰ)," 圖書館雜誌, Vol.90, No.9(Sep. 1996), pp.717-731.

데, 특히 동독과 서독의 국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문서관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독일 외부의 도서관에 소장된 망명 출판물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당시 진행되었던 미간행 자료들에 대한 색인 구축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당시에 사회에 유입된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나치집권 시기의 망명 출판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2.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난민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정보서비스 사례보고에 관한 것이라면, 이 영역에 속하는 연구들은 도서관에서 향후 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연구는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난민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방안들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난민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매우 중요함을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각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Simsova는 영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117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시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지역 내 베트남 난민의 존재에 대해 인식은 하였으나, 이들을 위한 장서개발이나 도서관 서비스에는 소극적이었음을 밝혀내었고, 영국 전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베트남인들을 위해서는 베트남 커뮤니티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간에 베트남어 자료를 상호 대출하여 제공하는 Back-Up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리고, Allen은 영국의 도서관과 사서들이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Social Exclusion Action Planning Network”의 교육훈련 세미나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영국의 Merton시와 Kent시 공공도서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존의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향후 실천과제로써 난민 언어로 된 자료의 공유, 지역 내 다양한 그룹 및 난민 커뮤니티와의 연계, 모범전파와 교육 등을 결정하고, 난민 서비스를 위한 사서들의 비공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노력을 결의하는 등 영국 도서관계의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³³⁾ 또한, Heyworth는 영국 내에서 난민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31) Hugo Kunoff, “Emigres, emigration studies, and libraries,” *Library Quarterly*, Vol.45, No.2(Apr. 1975), pp.141-149.

32) Sylva Simsova, *Library needs of the Vietnamese in Britain*(London: Schoo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tudies, Polytechnic of North London, 1982), pp.1-62.

33) Leigh Allen, “What we can do to help,” *Public Library Journal*, Vol.16, No.1(2001), p.17.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영국 정부의 지역 분산형 난민정착 정책과 이에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역정부와 난민 커뮤니티, 관련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분산정책에 맞춰 공공도서관이 난민 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도서관 서비스 지역 내의 난민 커뮤니티, 지역 컨소시엄 등과의 협력 준비, 그리고 향후 장서개발을 위해 지역 내 언어 유형 파악을 비롯하여, 영어교육을 위한 자료와 기자재 준비, 도서관 회원가입의 제한 해제, 이동도서관 경로 변경, 각종 홍보 등 난민들의 도서관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들이었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방안으로 망명신청자의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용, Refugee Week 참여와 난민 관련 직원교육 등의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³⁴⁾

북유럽의 연구를 살펴보면, Skot-Hansen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의 도서관들이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향후 모두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료선정과 도서관 서비스와 이벤트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³⁵⁾ 그리고, Thorhauge는 단일 민족 전통을 가진 덴마크에 최근 급증한 난민과 이민자 등 소수인종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덴마크 도서관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성공적 경험과 인터넷의 결합을 토대로 하여, 난민과 이민자의 효과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hybrid library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hybrid library는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보제공은 물론, 능력개발, 취업과 언어능력 향상 등 효과적인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그리고 자신의 인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료 제공을 통해 인성계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들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는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⁶⁾

미국의 경우, 난민 관련 정보전문가 Mason은 최근 코소보 난민 등 미국 내 난민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공도서관들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공공도서관의 과제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난민들의 정보요구 파악 및 정착 안내자료의 배포, 난민의 모국어로 발행된 자료수집 등을 통해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다 잘 알리기 위해 난민의 경험을 담은 자료 확충, 관련 전시회와 강연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끝으로 난민관련 연구자나 정책입안자, 활동가들의 정보요구 충족

34) Felicity Heyworth, "Get involved in integration," *Public library journal*, Autumn 2004, pp.12~16.

35) Dorte Skot-Hansen, "The public library between inte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35, No.1(2002), pp.12-13.

36) Jens Thorhauge, "Danish Strategies in Public Library Services to Ethnic Minorities," *IFLA journal*, Vol.29, No.4(2003), pp.308-312.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³⁷⁾ Tirimanne은 정보의 공공성 확보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라는 도서관과 정보전문직의 이념과 윤리에 근거해 도서관계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미국 내 관계당국의 대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늦었으며, 도서관계도 불명예스러운 “도피자”의 이미지를 보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정보정책에는 난민의 특성과 고유한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계획과 정보전문직들의 다문화적 인식과 외국어 능력 향상, 난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의식 고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⁸⁾

위의 연구들과 달리,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Albin은 서유럽 국가에서 발행된 난민관련 출판물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대학 도서관들이 그 출판물들을 입수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유럽의 난민 그룹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명성있는 난민 저자들이 없고, 출판물들이 주로 정치적 팸플릿이며, 이로 인해 대학 도서관들의 수집기준을 벗어나 있고 주류 도서업체들도 정기적 공급을 할 의지가 없어,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으며, 사서들이 난민 출판물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³⁹⁾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 시안을 관련 자료의 서지정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⁴⁰⁾

끝으로 난민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다룬 연구들을 소개하면, 먼저 1980년 IFLA 총회에 서 Hoyle은 세계 31개국에 흩어져 정착하고 있는 26만 여명의 인도차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미국, 프랑스 등등의 도서관계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모국어 자료구입, 베트남 난민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소개하며, 향후 각국의 베트남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출판사 관련 정보공유, 국제 도서관전과 IFLA 총회 등을 통한 자료교환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간의 자료교환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⁴¹⁾ 또한, Craver는 난민과 이민자 어린이들은 부모들보다 더 많은 문화적 충격과 정체성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이를

37) Elisa Mason, “Against All Odds: Refugees Coping in a Strange Land,” *American Libraries*, Vol.30, No.7 (1999), pp.44-47.

38) Nimo Tirimanne, *ibid.*, pp.67-73.

39) Michael W. Albin, “Refugee and exile publishing in Western Europe: a report of field research,” *Collection Management*, Vol.15, No.1/2(1992), pp.223-231.

40) “Social Studies: Refugees and Loss of Homeland,” *School Library Media Activities Monthly*, Vol.16, No.10 (June 2000), pp.17-19.

41) Karen Nelson Hoyle, “Children’s literature for the Indochinese refugee: an international challen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Malila, Philippines, August 1980), pp.18-23.

해결하기 위해 사서들은 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새로운 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 사서들은 교사, 부모, 인종 커뮤니티를 통해 인종적 배경을 학습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자료수집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⁴²⁾

3.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정보원 안내

여기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주로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 전반의 목록, 색인, 초록, 디지털 원문 등과 같은 매체 정보원들과 난민 관련 전문도서관과 웹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메일링 리스트 등 기관 정보원들을 안내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난민 정보전문가인 Mason과 Rhodes 두 사람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고,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연구들이 주요 정보원으로써 UNHCR과 옥스퍼드 대학의 Refugee Studies Centre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으며, 일부의 연구는 특정 국가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정보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련 정보원의 양과 질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난민관련 정보원을 안내하는 이 분야의 연구들은 난민과 강제이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기보다는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에 초점을 맞춘 서지정보 안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Mason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ason은 1997년 논문에서 UNHCR 산하의 인권과 난민 전문 정보센터로 1982년에 설립된 the Centre for Documentation and Research(CDR)의 목적과 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대한 양의 난민 관련 정보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종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국제법 및 조약, 색인, 사전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⁴³⁾ 2000년에는 UNHCR을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난민관련 정보생산 핵심기구인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EXCOM)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 곳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소개하며,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들이 EXCOM의 자료들을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그리고 The University of Michigan의 Law School에서 개발한 난민 관련 판례 정보원인 Refugee Caselaw Site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사이트의 특징과 검색방법

42) Kathleen W. Craver, "Bridging the gap: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s," *Journal of Youth Services in Libraries*, Vol.4, No.2(Winter 1991), pp.123-130.

43) Elisa Mason, "UNHCR, Human Rights and Refugees: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ol.25(1997), pp.35-86.

44) Elisa Mason, "Resolving refugee problems: an introduc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and its documentation,"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l.27(2000), pp.1-11.

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호주, 독일, 스위스,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난민 지위 인정 판결문의 fulltext를 제공하고 있어 법률 관계자, 난민 지위 결정권자, 정책 입안자, 법학 전공 학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⁴⁵⁾ 그리고 2002년에는 전세계 2100만명 이상의 난민과 강제이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임받은 UNHCR에 대해 난민 관련 정책결정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원으로써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UNHCR에서 생산하는 공식문서와 평가 및 연구보고서, 잡지, 국가별 보고서, 법률문서, 편람, 지도, 통계, 사진 등의 양질의 정보를 이용자들은 UNHCR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메뉴의 구성과 배치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⁴⁶⁾ 또한 Mason은 Deegan과 더불어 학제적 성격을 가진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관계자들(연구자, 활동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인 Forced Migration Online(FMO)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FMO에는 3천여개의 회색문헌과 관련 저널의 원문과 난민학 연구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정보를 제공하는 Digital Library, 주제별/국가별 전문가들이 각종 난민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하는 Research Guides, 웹상의 논문, 보고서, 정부간행물 등 정보원들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Web Catalogue 등의 기능들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련분야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지원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⁷⁾

한편, Mason은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 참고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그녀는 1999년 연구에서 난민과 강제이주학 학문의 최근 급성장을 언급하면서, 현재 이 분야에 백과사전, 사전, 난민전문 색인 등 기본적인 참고자료의 부족과 최근 난민관련 회색문헌의 증가로 인한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최신정보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과 이 분야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관련 참고자료의 양적, 질적 확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또한 2000년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경우, 참고정보원들이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참고정보원들은 주제범위가 협소하고, 수량에서도 부족하며, 지속적인 갱신이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향후 백과사전과 리뷰 등 핵심적 참고자료의 개발과 색인 및 초록 서비스, 저널목차 검색 등의 물리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의 개발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⁴⁹⁾

45) Elisa Mas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Refugee Caselaw Sit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61, No.11(Dec. 2000), pp.1038-1039.

46) Elisa Mason, "UNHCR: The UN Refugee Agenc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63, No.7(Jul/Aug 2002), pp.516-517.

47) Marilyn Deegan & Elisa Mason, "Forced migration: a complex subject,"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1, No.8(2002), pp.40-41.

48) Elisa Mason, "Researching refugee and forced migration studies: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and the reference literature," *Behavioral & Social Sciences Librarian*, Vol.18, No.1(1999), pp.1-20.

49) Elisa Mason, "Forced Migration Studies: Surveying the Reference Landscape," *Libri*, Vol.50(2000), pp. 241-251.

Mason과 같이 난민관련 정보전문가로서 정보원 안내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를 발표한 Rhodes 역시 주목할 만한데, Beyani, Talal & Rhodes와 Rhodes는 난민과 강제이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Oxford대학의 Refugee Studies Centre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인 난민관련 정보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1982년 Refugee Studies Programme(RSP)로 출발한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된 Refugee Studies Centre(RSC)의 도서관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이유는 3만점 이상의 특화된 난민관련 장서 구축, 이용과 접근의 편리, 논리적이고 쉬운 특별한 분류체계, 준비된 사서들의 적극적 서비스 등이라 밝혔고, 또한, 이 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기능 뿐 아니라 난민 관련자료의 Fulltext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과 난민전문 포털사이트 Forced Migration Online(FMO)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⁰⁾⁵¹⁾

한편, Rhodes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메일링 리스트, CD-ROM 등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전자 정보자원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널과 신문기사에 대한 최신정보 안내서비스, Oxford의 Refugee Studies Programme Documentation Centre 등 관련 도서관 및 자료센터의 목록정보, 그리고 관련분야의 학술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 정부기구, 국제기구의 홈페이지 리스트와 LISTSERV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소 등을 제공하였다.⁵²⁾

이 들 외에도 Paynter는 1998년 미국 ALA의 연례총회에서 ACRL의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섹션이 개최한 난민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요구에 초점을 맞춘 “A World in Motion: Refugee and Resource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난민과 강제이주 관련 주요 인터넷 자원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난민 관련 분야의 출발점으로 인권과 난민관련 웹사이트를 제시하고 학술연구센터, 미국 정부기관과 NGO의 웹사이트, 전자저널, 뉴스레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최신정보 안내 웹사이트들이 포함되어 있다.⁵³⁾ Brock은 Rhodes 등이 진행한 것과 유사하게 Oxford대학의 RSC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⁵⁴⁾ Grosek은 사서들이 인권 관련 조약들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참고질의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난민, 전쟁포로 등에 관한 30여개의 국제협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9개 조약의 명칭과 체결일자, 체결장소, citation 정보 등을 소개하였으며, 인권협정, 난민협정, 전쟁포로협정에 관련된

50) Chaloka Beyani, El Hassan Talal, Sarah Rhodes, “Refugee sources for lawyers: the Documentation Centre of the Refugee Studies Programme,” *Law Librarian*, Vol.26, No.2(June 1995), pp.327-330.

51) Sarah Rhodes, “Profile of the refugees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Oxford”, *SCONUL Newsletter*, Vol.28 (Spring 2003), pp.76-80.

52) Sarah Rhodes, “Electronic information sources on refugees and forced migration,” *Information Development*, Vol.12, No.3(1996), pp.173-177.

53) Robin Paynter, “A world in motion: Refugees and resourc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Vol.59, No.8(1998), pp.591-594.

54) Sally Brock, “Information services in a research library: refugee Studies Centre Library,” *Library and Information Briefings*, Vol.100(May 2001), pp.1-11.

편집 저작물들의 서지정보를 제공하였다.⁵⁵⁾

한편, 보건이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원을 소개하는 연구를 들면, 먼저 Papangelis는 미국 내에서 건강보호를 추구하는 소수인종, 이민자, 난민들의 언어적, 문화적 요구 충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Diversity RX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는 이 사이트가 이중 언어(bilingual) 보건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지만, FAQ나 검색엔진 등의 제공과 정신의학 증후군과 관련된 용어 사전의 추가 등 개선점에 대해 지적하였다.⁵⁶⁾ 그리고 Mollel은 세계 각국의 보건관련 종사자와 정보전문가들이 빈곤국 출신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보건관련 자료입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LISTSERV들의 인터넷 주소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소개하였다.⁵⁷⁾

특정 국가의 난민에 관련된 정보원을 소개하는 연구는 Duszak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그는 폴란드와 관련된 북미지역 내 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 등을 비롯한 전자정보원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Organizations, Special collections, Bibliographies, Government, Religion, genealogy, Newspapers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리스트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⁵⁸⁾

4. 난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도서관과 사서들을 주 대상으로 한 난민관련 정보서비스 사례보고와 향후 서비스 방안 제시, 그리고, 난민 연구자와 활동가를 주 대상으로 한 서지정보원 안내 등을 다룬 연구들로 분석대상 문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난민들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간과되어 왔던 난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난민그룹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특정 난민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난민의 건강관련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민들의 정보요구와 그 행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는 Raddon과 Smith에 의한 British Library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영국 내에서 거주하는 난민그룹들을 대상으로

55) Edward Grosek, "Locating the texts and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greements," *Behavioral & Social Sciences Librarian*, Vol.21, No.1(2002), pp.15-27.

56) Penelope Papangelis, "Diversity Rx(Web sit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60, No.3 (1999, 3), pp.200-201.

57) Obianuju Mollel, "International outreach: web sites on health and development,"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Vol.20, No.3(2001), pp.57-66.

58) Thomas Duszak, "The Polish presence in North America: An update for electronic resour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66, No.10(2005, 11) pp.720-724.

하여 그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99개와 난민 자원봉사(NGO) 영역의 난민 봉사단체 12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등을 통해 나타난 난민들의 주요 정보요구는 법적 권리, 주택, 복지, 건강, 교육/훈련, 업무/고용, 영어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많이 존재하지만, 공적 영역간, 자원봉사 영역간,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 부족, 정보원에 대한 서지정보 관련 문제, 번역문제 등을 포함하여 정보생산과 배포에 관한 정책의 결여로 인해 난민들이 그 정보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난민들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우연성에 의존하게 되고 개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원에 대한 지식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적 영역과 자원봉사 영역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은 인쇄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자료들은 읽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호협력과 도서관의 역할 증진 그리고 향후 정보기술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⁵⁹⁾

이어, Olden은 오랜 구두(口頭)문화 전통을 가진 소말리아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온 후 달라진 정보환경에서 어떠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런던에 거주하는 25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민족기술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말리아인들은 교육과 취업 등 생활 전반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습득과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구두문화의 영향으로 전화로 폭넓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위성 라디오방송으로 BBC Somali Service를 듣고 있었으며,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 역시 주로 구두 언어로 전달되고 있었다. 젊은 이들은 빈곤한 소말리아 농촌 환경과 난민캠프 수용, 그리고 영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이들은 일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중매체와 관련해 소말리아어 출판물들은 거의 없으며, 이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신문구독은 선호되지 않았으며, 인터넷 이용은 소말리아인 전문가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이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태어난 소말리아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그 부모세대간에 문화적 충돌과 정보습득의 격차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⁶⁰⁾

59) Rosemary Raddon & Christine Smith, "Information needs of refugee groups,"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Report*, Vol.71(1998), pp.1-67.

60) Anthony Olden, "Somali refugees in London: Oral culture in a western information environment," *Libri*, Vol.49(1999), pp.212-224.

한편, 위의 논문들과 달리, 난민들의 건강 관련 정보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Davies와 Bath는 영국 내 소말리아 난민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모성(maternity) 정보원을 파악하기 위해 8명의 여성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5명의 여성들과는 개별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다양한 대인 정보원으로부터 모성 정보를 찾고 이용하였는데, 특히 일반 개업의(General Practitioner)와 가정순회 보건관(Health Visitor)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인종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보건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community health forum 역시 좋은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말리아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말리아의 오랜 구두(口頭) 전통과 일부 여성들이 문맹인 점은 문자보다는 구두를 통한 정보 교환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였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대인정보원은 많은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대인정보원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자기에 맞는 질문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보건 전문가의 인식된 전문성을 기준으로 받은 정보를 평가하였고, 동료로부터 얻는 정보는 그것의 적합성에 따라 평가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영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 보건전문가의 정보에 충분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아, 정보요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⁶¹⁾ 이 연구는 오랜 구두 전통을 가진 민족의 특성에 근거했다는 점과 모성정보라는 특정 영역의 정보요구에 초점을 맞춰 깊이있는 데이터들을 끌어낸 점에서 향후 난민관련 정보현상 연구에 중요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또한, Allen과 Matthew, Boland 등은 미국 위스콘신 주에 거주하는 몽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측면에서 적합한 보건교육 및 보건정보 활용능력(health literacy)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⁶²⁾ 이 연구에 의하면, 몽족 역시 1950년대 이전까지는 문자가 없을 정도로 오랜 구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거주환경과 전쟁, 유랑생활 등으로 교육의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등 이들의 문자해독 능력에 제한이 많아 보건정보 제공에 있어 통역과 번역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면대면 보건교육이 선호하며, 시청각자료(A/V)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족은 서구와 다른 보건 가치관과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유랑과정으로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극빈층을 벗어날 수 없어 현재 최악의 보건 상태에 처해있어, 보건 정보와 보건 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급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지역보건센터, 공공도서관, 영어 교육기관 등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몽족 언어와 영어의 이중언

61) Myfanwy M. Davies & Peter A. Bath, "Interpersonal sources of health and maternity information for Somali women living in the UK,"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8, No.3(2002), pp.302-318.

62) 몽족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종전 후 라오스 등지에서 반역자로 취급받아 인근 고산지역과 UN난민캠프 등지를 떠돌다가 일부는 미국으로 유입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4년 8월 10일.

어로 구성된 몽족 보건 웹사이트와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을 제작·보급하였고, 몽족을 위한 건강 박람회와 전시회, 보건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몽족 보건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합한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끝으로 저자들은 난민과 이민자들은 보건관련 정보요구가 많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사서들은 보건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³⁾

Ⅲ. 기존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정보현상을 다룬 47편의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오다 전쟁, 내란, 폭동, 기근 등 인간으로서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낯설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척박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나름의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난민 이용자들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 여러 사례들은 도서관의 설립 이념과 사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도서관들이 지역 내 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양적 부족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난민 관련 연구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특히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육체노동자, 농민, 장애인, 노인, 이민자, 소수민족집단 등과 같은 사회의 정보빈곤층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결과는 각국의 정보정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져왔다.⁶⁴⁾ 이에 비하여, 난민에 관한 연구는 본

63) Margaret Allen, Suzanne Matthew & Mary Jo Boland, "Working with Immigrant and Refugee Populations: Issues and Hmong Case Study," *Library Trends*, Vol.53, No.2(2004), pp.301-326.

64) 정보빈곤층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많은 학자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소외계층의 정보빈곤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범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Elfreda A. Chatman의 공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Chatman은 일용직 노동자, 대학교 청소부, 퇴직 여성, 교도소 복역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빈곤층의 정보행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적 수량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도 일부 존재할 수 있고, 앞에서 밝혔듯이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생산된 관련 연구들도 일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 DB 2종에 대한 상세한 검색과 연구대상 문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용문헌 조사 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관련 문헌들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연구의 양적 부족은 그간 문헌정보학과 현장에서 난민들의 정보빈곤 현상에 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노동자, 장애인, 이민자와 같은 정보빈곤층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아직은 부족한 편이며, 향후 계속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앞으로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현장의 더 많은 관심과 논의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한편, 난민연구와 관련해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관련 연구를 출판연도순으로 살펴봤을 때, 1980년까지 2편, 1981-1990년간 6편, 1991-2000년간 17편, 2001-2005년간 22편으로 최근에 난민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헌정보학 분야가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연구자의 부재

이어, 논문 저자들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난민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도서관 사서들과 같은 정보전문직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수나 박사과정 연구자 등 학술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는 8편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나머지 연구들은 도서관 사서가 24편(51%), 난민관련 기구에 종사하는 정보전문가가 9편(19%), 난민 관련 주(州) 정부 공무원(information officer) 1편(2%), 난민 자원봉사단체 활동가 1편(2%), 파악불가 4편(9%) 등으로 나타났다.⁶⁵⁾ 이와 관련하여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는 간행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학술지(academic journal)가 아닌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전문직 잡지 또는 업계 잡지(trade journal)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ibri>나 <Journal of Documentation>과 같은 학술잡지에는 총 7편(15%)의 논문이 수록되었던 반면, <Public Library Journal>, <College & Research Library News>과 같은 전문직 잡지에는 무려 37편(79%)이 수록되었다. 그 외, 연구보고서는 2편(4%), 세미나 발표자료는 1편(2%)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학계보다는 현장 사서들과 정보전문직에 의해

65) 난민관련 기구에 종사하는 정보전문가가 쓴 8편의 연구 중 6편은 Elisa Mason에 의해 작성되었다. Mason의 경우, 문헌정보학 석사학위(MLS)를 가지고 있으며, UNHCR에서 6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난민/강제이주학 분야에서 난민 정보전문가(refugee-information specialist)로 활동하고 있다. Mason 외의 다른 정보전문가들은 난민연구센터의 information manager, 대학의 난민학 프로그램 documentalists로 파악되었다.

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의 난민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난민에 대한 연구들이 도서관 사서들이나 난민관련 정보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현장에서 난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과정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구들은 다른 도서관과 정보전문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깨닫도록 자극하여 더욱 새로운 서비스를 낳을 수 있으므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구대상 논문 중 현장에서 생산된 논문들의 다수가 2-5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난민들의 정보환경이나 정보요구, 정보행태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제는 분명히 문헌정보학계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논문 저자들 중에서 Elisa Mason(8편), Sarah Rhodes(3편), John Pateman(2편)을 제외하면 2회 이상 논문생산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⁶⁶⁾ 이들은 모두 난민정보 전문가 또는 도서관 사서들로, 2편 이상 연구를 발표한 전문 연구자들은 없었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들이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자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현장의 정보전문가들이 이를 토대로 현실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난민관련 정보현상에 관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계층의 정보빈곤에 관해 오랜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Chatman과 같이 난민 등 정보소의 계층에 천착하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출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앞의 II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대상 문헌들의 주제는 크게 개별 1) 도서관/정보센터의 사례보고 2)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3) 난민과 강제이주 분야의 서지정보 안내 4) 난민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등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카테고리별로 생산논문의 수량을 살펴보면, 사례보고가 16편, 서비스 방안 제시가 11편, 서지정보 안내가 16편,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분석이 4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난민 관련 연구들이 개별 난민들의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나 난민을 둘러싼 정보환경, 그들의 삶의 고민과 그와 관련된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난민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난민/강제이주학 연구자와 난민 활동가, 지역의 난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 사서들 쪽으로 지나치게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도서관 사서들과 난민관련 정보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난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연구자의 부재와 밀접히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66) 사실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거의 유사하게 투고한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물론, 개별 도서관 등의 난민 대상 서비스 사례보고나 새로운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나 난민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서지정보원에 대한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난민의 정보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난민들의 정보세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난민그룹에 어울려 연결되는 연구테마가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현미경을 들이대는 난민 맞춤형 연구테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한 사회 속에 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기초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난민 수용국가에는 다양한 민족에서 온 난민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개별 민족 또는 국가별 난민그룹의 특성 파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코소보 난민, 베트남 난민,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이 각각 민족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난민들은 출신국가와 인종별로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전통이 다르므로, 개별 난민그룹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랜 구두(口頭)문화의 전통을 가진 소말리아 난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소말리아 난민들에 적합한 자료형태와 정보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개별 난민의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맞는 연구들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된다면, 난민 수용국의 정보정책 수립과 도서관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4.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

위에서 언급한 전문 연구자의 부재는 기존 연구들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과도 밀접한 연결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연구들은 체계적인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연구질차를 적용하여 작성된 학술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현직 종사자들의 업무경험에서 나온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한 에세이, 개인적 주장 또는 르포의 성격이거나 서지정보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유형의 글들로써, 단편적이고 분량이 2-5페이지 정도로 적으며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논문에서도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구대상 총 47편의 논문 중에서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총 6편으로 나타났는데, 사용된 연구방법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반구조화 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을 사용한 민족기술지 연구가 2편이 있었고,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면담과 반구조화 면담을 병행한 복합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한 연구가 1편이 있었으며, 그 외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방문조사도 각각 1편 있었다. 이 연구들은 난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관련 연구가 3편, 도서관서비스 제안 연구가 2편, 관련 정보원을 소개하는 연구가 1편이었다. 저자를 놓고 살펴보면, 4편은 학술연구자에 의해, 2편은 도

서관 사서와 난민 정보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 학술연구자에 의해 주로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의 사용은 성공적인 연구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연구들은 난민들의 정보빈곤 현상을 조사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난민들의 절박한 정보빈곤 현상에 초점을 맞춘 난민 맞춤형 연구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잘 짜인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가급적 정량적 데이터수집 방법보다는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문화기술법이나 근거이론 등과 같은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개별 난민들의 특성을 분석한 설득력 있는 기초 데이터들이 부재하고, 난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굳건한 상태가 아니므로,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계량적 조사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록 표본 규모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들을 더욱 자세하고 심도있게 들여다보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들의 정보빈곤 실태와 정보행태를 파악하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노동자, 도시빈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정보빈곤 현상에 대한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어 풍부한 데이터들을 개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이 점증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난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대한 개념적 모델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악의 정보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에 대해 문헌정보학 분야는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시켜 왔는지, 그리고 그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관련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47편의 난민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①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보고 ②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③ 난민과 강제이주 분야의 서지정보 안내 ④ 난민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들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난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였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사회적 지평을 확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양적 부족과 난민 관련 전문연구자의 부재,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67) 연구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들에 대해서 굳이 연구방법을 분석해 보면, 주로 사례연구와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석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사회 내에 많은 정보빈곤 계층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정보환경에 있는 정보빈곤 계층은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내란, 인종청소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잔학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매년 수십만, 수백만의 난민들이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들과 유사한 수준의 가족, 친구와 같은 비공식 대인 정보원들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정보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정보요구를 인식하지 못해 그 요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 정보빈곤계층으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문헌정보학과 현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과 정보전문직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난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국가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직 종사자들은 난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느끼는 정보요구는 무엇인지, 그들의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사회에서 의미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개별 난민그룹별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룹별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 1-2년 사이에 1만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은 희망과 안정보다는 혼란과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빈곤과 소외를 야기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정치, 경제체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입수가 원활하지 않은 데에서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보빈곤에 관련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학술연구는 물론이고 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보고조차 전무한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 문헌정보학과 사서들을 비롯한 정보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을 대비하여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과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보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보전문직의 직업이념과 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КСІ